

우리가 먹는 초콜릿에도 화학이 숨어 있다



일상적이지만...

헤일리 버치 지음

“초콜릿의 주성분인 코코아버터는 트리아실글리세롤이라는 분자이다. 그러나 그냥 간단히 코코아버터라고 부른다. 이 코코아버터는 자그마치 여섯 가지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다. 이 각기 다른 형태를 다형체라고 한다. 이 여섯 가지 다형체는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녹는점도 서로 다르다.

초콜릿을 녹였다가 다시 굳힐 경우 처음과 다른 다형체가 형성되고 그 결과 맛이 달라진다. 그냥 상온에 두더라도 초콜릿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처음과 다른 형태-가장 안정적인 다형체-로 변한다. 화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상전(phase transi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쉽게 먹는 초콜릿에도 ‘화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화학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다. 생물보다 현실과 거리가 멀고, 물리학보다 덜 흥미로운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화학이 우

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매일 차에 넣는 기름, 유전정보가 들어 있는 DNA, 인공 근육, 미래를 이끌 3D프린팅 등은 모두 화학지식에서 비롯되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 현상을 쉽게 서술한 책이 발견됐다. 영국의 과학자이자 과학잡지 편집자인 헤일리 버치가 펴낸 ‘일상적이지만 절대적인 화학지식 50’은 “화학을 몰라도 살 수는 있지만 화학 없이는 살 수 없는” 다양한 화학지식을 설명한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근본이 탄소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세어 보면 6개 중 하나가 탄소다. 평범한 원소인 탄소를 주요의 원소로 만든 것은 인류다. 산업발달과 자동차 증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구를 위협하지 않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연료를 개발하는 것이 화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밖에 책에는 화학의 생산물인 맥주에서 홉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학 현상을 설명하는 사례가 들어 있다. 책을 읽다 보면 “화학이야말로 비록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최고의 학문”이라는 저자의 말을 실감하게 된다.

〈반니출판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방원·하륜·정도전... 그들은 어떻게 권력자 되었나

조선의 2인자들

조민기 지음



조선의 500년 왕조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세계 어느 왕조와 비교해도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다. 잦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조선의 문화는 꽃을 피웠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이라는 1인 집권에 의해 좌우되고 유지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렸던 2인자들이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국명하게

드러난다. 최고 권력자인 임금보다 그 주변의 2인자들이 권력을 소유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을 뒤흔든 2인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간됐다. 2014년 베스트셀러 ‘조선 임금 잔혹사’의 조민기 작가가 펴낸 ‘조선의 2인자들’은 육망이 어떻게 권력이 되고, 역사 속에 기록되었는지를 조명한다.

저자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역사 서적들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공통점 때문이었다. ‘조선왕조실록’과 다양한 역사 서적에서 신하들은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고 임금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27명의 임금 중 후세에 성군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세종과 정조에 불과하다. 반면 임금을 보좌했던 신하들은 놀라울 정도로 후했다.

저자는 ‘간국’, ‘장엄’, ‘육망’, ‘권력’, ‘당쟁’이라는 5가지 테마를 토대로 모두 10명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고려의 끝에서 조선의 시작을 설계한 이성계와 정도전, 왕의 아들임에도 버림받은 이방원,

탁월한 처세가이자 경제가인 하륜, 혁신 정치의 원형을 만든 세도가 한명회 등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집안이나 인맥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한명회의 인생은 드라마틱했다. 칠사동으로 태어나 부모에게까지 외면당했던 불운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청년기에는 일찍 부모를 잃고 가난에 시달렸으며 38세까지 관운이 풀리지 않아 고생했다. 하지만 야망을 숨기고 있던 수양대군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의 육망을 현실로 만들어 줌으로써 권력을 거머쥐었고 이후 화려한 세도가의 길을 걸었다.”

과거시험에 반반이 낙방할 정도로 공부머리가 좋지 않았던 한명회는 시대와 사람을 꿰뚫는 능력으로 권력을 잡은 케이스다. 38세에 초라한 문봉지사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지식들의 시류를 읽는 탁월한 눈으로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것이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2인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훈공의 시대를 이끌며 당쟁을 예

명대신 이준경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조정의 화합을 중시하는 중도파로 ‘무엇든 과격한 것은 좋지 않다. 비록 그 뜻이 옳다 하여도 방법이 과격하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지론을 견지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신진사대부들에게 ‘훈구파’라는 공격을 받았다.

500년 역사를 이끈 조선 2인자들의 면면은 적잖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이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얽히고설킨 ‘인맥’과 뜻밖의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사건들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던 기지와 처세술은 추리소설을 보는 느낌을 준다.

때마침 선량을 뽑는 선거가 할말 여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일까. 화려한 수식어의 뒤면에 자리한 ‘조선의 2인자’를 읽고 나면 충신과 간신, 명신에 대한 상(像)이 어렴풋이 그려질 것 같다.

〈책비·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조선 역사의 중요 순간마다 임금보다 더한 권력을 누렸던 2인자들. 왼쪽부터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 하륜, 수양대군, 한명회, 임사홍, 김안로, 이준경, 송익필.

인문학자 박이문의 사상과 사유 집대성



박이문 인문학 전집

박이문 지음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로 꼽히는 박이문의 사상과 사유를 집대성한 전집이 출간됐다. ‘박이문 인문학 전집’은 평생 인문학을 향한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인문학 마에스트로의 산물이다.

올해 86세인 박이문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다. 대학원 석사논문은 프랑스어로 쓸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 이화여대의 전임교수로 발탁되었지만 안정된 교수직을 버리고 프랑스 유학을 떠나 문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인문학을 향한 끝없는 구도의 길을 걷는다. 이후 시몬스대

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한다.

이번 전집에는 1950년대부터 80대인 2010년대 중반까지 60여 년 동안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발표했던 글들이 담겨 있다.

그의 관심은 문학과 철학에서 언어학, 예술, 동양사상, 과학, 환경, 문명을 넘나든다. 1960년대 초반까지 ‘사상계’에 연재한 ‘파리의 작가들’은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부터는 동양사상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노자’와 ‘장자’, ‘논어’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학문적 고찰을 시도한다.

이밖에 박이문의 지적 편력은 종교에 대한 근원적 탐구에까지 이를 만큼 방대하다. 1970년대 초반부터 윤리와 도덕 그리고 죽음, 나아가 종교에 관한 글들을 발표한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닌 삶의 궁극적 의미를 휴머니스트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다스북스·전 10권 3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연의 미학’ 문학세계 구축한 오스터 회고록



내면 보고서

폴 오스터 지음

도회적이고 감성적인 언어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연의 미학’이라는 독창적 문학 세계를 구축했던 폴 오스터의 사적이고 내밀한 기록을 집약한 회고록 ‘내면 보고서’가 출간됐다. 현대 미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답게 특유의 문체가 인상적인 책은 작가의 유년기 기억부터 치열하

게 글을 썼던 20대 초반의 청년기 기억까지 담고 있다.

회고록은 전작 ‘겨울 일기’처럼 2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현재의 오스터가 과거의 자신을 ‘당신’이라 지칭하며 회상을 전개하는 형식이다.

그의 회고록이 매력적인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어린 시절에 겪었을 감정과 인상을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감수성 때문이다. 어린 날 어머니와 다림질을 관찰하며 도토리를 줄던 기억, 여름밤에 반딧불이를 잡아 마법 항아리에 넣고 다녔던 일 등 일상적인 사건을 의미있게 그려내는 데 있다.

〈열린책들·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면초가 삼성, 이견회를 통해 미래 예측한다



이견회

심정택 지음

대한민국 경제경영사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고, 기업을 넘어 하나의 아이콘이 된 삼성 이견회. 우리는 이견회라는 인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가 그린 삼성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하는가. 이견회가 곧 삼성이고, 삼성이 곧 이견회인 ‘완벽한 하나의

이견회’를 정의한 책 ‘이견회’가 나왔다. 삼성엔 출신으로 ‘삼성의 몰락’과 ‘현대사태를 말한다’를 출간한 바 있는 심정택이 펴낸 책은 정치권력과 산업권력의 대표인 삼성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파고든 결과의 산물이다. 저자는 이견회를 통해 삼성의 미래를 예측한다. 삼성 내부의 힘으로 경영 승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던 이견회 체제때와는 다르게 현재 이재용 체제에서의 삼성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저자는 두 부자의 경영체제를 비교하며 위기에 몰린 삼성의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묻는다.

〈새로운현재·2만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大 山 **프리모** 남가발

기능장1호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現)BLVD HOTEL
서울 영등포 로터리 **신축 호텔**

매매 교환

15층 81실
임대완료(성업중)
보증금 10억, 월세 7500만원

- 시행사 직접매매
- 매매가 165억원(조정가)
- 교환가능(토지, 건물 등)
- 직영가능

담당자 : 조승정 상무 010-7624-8822